

일

| 김흥호 | 이화여대 명예철학 박사

일은 노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유희삼매라는 것. 이때 매일매일이 좋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요한복음 5:1~10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 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 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건너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건너들고 걸어갔다.

요 한복음 5장 17절에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 일이란 무엇인가.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쓸 때 요한복음 1장을 번역한 곳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인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괴테가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란 결국은 괴테의 생각으로 말하면 ‘일’이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말씀을 무엇으로 번역할까 하다가 길 도(道)자로 번역을 했어요. ‘도’라, ‘길’이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으니…”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 도라고 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렇게 읽기는 읽지만 내용은 ‘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일’이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말, 또 ‘도’라는 말이 요새는 무슨 말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술(藝術)’이라는 말이 되지요.

일이란 무엇인가? 예술이지요. 예술은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거지요. 무엇이든지 잘하면 예술이지요. 웃기기 잘하는 사람, 하나의 예술이지요. 코미디언들, 또 말 잘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지요. 글 잘 쓰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지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길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일의 특징을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재미있어야 돼요. 둘째는 쉬워야 돼요. 셋째는 즐거워야 돼요. 그럼 즐겁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새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그래요. 또 어려운 것을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이 노동이지

요. 또 괴로워도 슬퍼도 안 할 수 없어서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이지요. 그래서 이 노동과 일을 정말 구별한 사람이 마르크스라 할 수 있는데 일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은 소외되었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물론 헤겔에게서 받은 사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이라 할 때 팔복을 쉽게 말하면 기쁘다는 것인데 무엇이 제일 기쁘는가. 그럴 때는 요전에 말한, 예배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 예배 보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는가. 왜 기쁘지는 모르지만 찬송 부르는 것이 기쁘다. 기도하는 것도 기쁘다. 성경 읽는 것도 기쁘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것도 기쁘다. 다 기쁜 거다.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기쁜 것이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기쁜 것이다. 진리가 기쁘다 그럴 때는 우리는 ‘법열(法悅)’이라는 말을 쓰지요. 진리란 기쁜 것이다. 기쁘니까 자주 진리를 탐구하는 거지,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진리를 탐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은 기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일은 기뻐야 일이지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하며 산다는 소리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쁘게 산다는 소리니까, 믿음이란 무언지 모르지만 기쁜 것이 믿음이다. 기쁨 없이 산다고 하면 일생 노동을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사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게 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노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몇 천 년 전부터 그렇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

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었다. 이렇게 창세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되어 모세 십계명 속에 한 조목으로 들어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 4조에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제정하기 훨씬 전부터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옛날부터 지킨 거지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왜 지켰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는 이 전통 속에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하루 쉬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엿새 일하고도 힘 안 들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느냐. 자, 보통이 아니지요. 요새도 가만히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다음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없애고 말았어요.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을 없애고 그날도 그냥 일하고 주일날은 더 큰 일을 하는 거지요. 나도 학교에 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학교에 나와야지요. 그리고 일요일에 또 교회 나와야지요. 난 1년 365일 동안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누가 없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재미있게 창조했으니까 좋더

라 그랬지, 창조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니까 기쁘다, 이렇게 되었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괴롭다고 이랬겠어요. 언제나 기쁘다든가, 즐겁다든가, 쉽다든가 하는 그 세계는 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필요 없다. 그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집어치워라.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얘기지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자꾸 놀고 싶어 하는데 노는 것이 재미있나, 일하는 것이 재미있나, 정말 재미는 일하는데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재미가 있지 노는 데는 통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일은 본질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은 재미있는 겁니다. 또 일은 쉬운 겁니다. 또 일은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노동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사느냐, 노동하고 사느냐, 이것 둘이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라는 사람은 노동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할 때 그것이 힘들면 찬송이 아니에요. 쉬워야 찬송이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시” 이러는 거지, 그것을 힘들어 하면 안돼요. 또 찬송을 부르면 즐거운 거지, 찬송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른다는 건 아니에요. 또 찬송은 재미있는 거지, 찬송이 재미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일은 어떤 것인가. 언제나 재미있고 즐겁고 쉽고 그래야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일이 아닙니다. 일은 언제나 쉽습니다.

그럴 때는 한문자로 ‘지도무난(至道無難)’이란 말을 써요. 정말 일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당히 몸이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힘이 안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면 노동하는 거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 거저먹기다, 그래야 일하는 거지. 그런 게 언제나 지도무난이에요. 쉬워야 좋아요. 동시에 이 일은 언제나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옛날 사람들은 ‘유희삼매(遊戲三昧)’라는 말을 썼어요. 일하는 것이 그대로 노는 거지 절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일하는 것은 매일 매일이 즐거운, 즉 일일호일(日日好日)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이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 정말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되면 정말 팔복 아니라 더 많은 복이라도 받은 거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일이 재미있나. 일은 내 속에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이 속에서 무엇이 자꾸 터져 나와서 해야 해요.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질이라고 하는 것과 일과는 일치되어야지 내 소질과 일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왜? 재미가 없지요. 내 소질에 맞아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요새 예비고사 점수를 놓고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무슨 과, 그다음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무슨 과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 놓으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러면 일하고 또는 공부하고 자기의 소질과 연결이 되지를 앓아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대학이 곧 지옥입니다. 정말 하고픈 것을 하게 되어야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대학 4년

을 어떻게 보냅니까. 옛날에는 제가 하고픈 것이 있으면 가령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되면 한 해를 배워도 즐겁고, 두 해를 배워도 즐겁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아무개 제자 아무개, 이렇게 되지요. 그때는 예비고사도 없이 가는 때예요. 자기 즐거우면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일이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일생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달리 말하면 요새 교육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점수로 따져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사람이 기계처럼 되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인 것, 자기의 소질이냐,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본성이 그만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자기의 소질이 드러날 수 있게끔 전공이란 그렇게 택해져야지요. 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전공하는 것이지요. 축구 잘하는 펠레라는 사람보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난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그랬다고 해요. 좋아하니까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게 되니까 자꾸 쉬워지고, 자꾸 쉬워지니까 자꾸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어서 펠레라는 사람이 축구를 다섯 살부터 했다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운동하지 못하게 볼을 찢고 감추고 별짓 다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좋으니까 자꾸 해서 ‘축구 황제 펠레’가 되었지요.

그렇게 좋은 것을 해야 무엇이 되지, 좋은 것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발전이 됩니까. 하기 싫게 되니까 지도무난이 아니고 ‘지도고난(至道苦難)’이 되고 말지요. 지도도 안되지만, 그러니까 일이 자꾸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나중에는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정말 큰 야단이지요. 요새 같은 교육 제도로서는 퇴계, 율

곡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 서당식으로 돌아가야 빛이 나오지
요새 같아서 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의 본성이 살아나야 하는 겁
니다. 자기의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네
가지로 따질 수 있어요. 감성(感性)과 오성(悟性), 이성(理性), 그리고 영
성(靈性) 또는 신성(神性), 그렇게 넷으로 따져봅시다.

사람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하면 감성이 자꾸 터져 나오
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하면 자꾸 신이 나
는 것은 사람의 감성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요전에 찬송,
기도, 성경, 설교 그랬는데, 이 찬송이라는 세계는 감성이 터져 나오는
세계예요. 결국 찬송은 예술과 통하는데, 예술의 핵심이 찬송입니다.
찬송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예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예요.

그다음 오성은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것이예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
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재미는 말할 수 없지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
비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오성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이에
요. 오성이 터져 나올 때 그 과학처럼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러니까 학문이란 원래 재미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만 잘못되어 놓으면
학문처럼 하기 싫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성이 터져 나
오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오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과학이라고
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
님께 기도드리는 그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성경이란 철학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성이 터져 나오는 것
이 성경이예요. 성경처럼 우리의 이성을 터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전에도 성경을 ‘날선 칼’이다, ‘좌우에 날선 칼’이라고 했는데, 순수

이성이예요. 우리의 이성이 터져 나올 때 그렇게 기쁜 것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래요.

설교란 우리의 영성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해요. 난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먹는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먹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터져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찬송, 기도, 성경, 설교를 확대해가면 예술, 과학, 철학, 종교가 되는 거지요. 다 기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의 본질을 사랑이라 한다면 사랑이란 한없이 재미 있는 것이고, 한없이 기쁜 것이고, 한없이 쉬운 거지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쉬운 거지, 에고~ 자식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누가 길러 먹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고, 사랑이란 즐거운 거고, 사랑이란 자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 터져 나오는 거니까 사랑이지, 생각이라는 것도 터져 나오니까 생각이 지, 생각이 만일 누구에게 빌려 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란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란 근원에서 자꾸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곧 문화의 근원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기독교 경전이라는 것이 서양문화의 근원 아닙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한없이 즐거운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 하는 것, 그것이 일이에요. 과학 하는 것이 일이요, 철학 하는 것이 일이요, 종교 하는 것이 일이요, 예술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빠져 나가고, 철학이 빠져 나가고, 과학이 빠져 나가

고, 예술이 빠져 나간 삶을 살려면 이게 노동이에요. 이게 괴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철학을 하고 산다든가, 과학을 하고 산다든가, 예술을 하고 산다든가, 종교를 하고 산다든가 할 때 이런 삶이라는 것은 한없이 기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끝)



- 이 글은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함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김흥호 사상전집 기독교 설교집 2

김흥호 저 | 사색 권 | 7,000원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편의 두 번째 설교집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김흥호 사상 전집>은 김흥호 선생의 50여 년간의 모든 강의와 설교 및 저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는 설교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풍부한 비유를 통해 쉽게 풀어 간다.